

### 연중캠페인 - 나눔의 손잡기 운동 '후원합시다'



▷무표정하게 굳은 아들 정명종 씨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정복술 할머니.

#### 선천성 뇌성마비 칠순 아들 수발

#### 애끓는 '아흔살 母情'

이리저리 나뉘는 세간들로  
웅색한 살림살이를 금방 알아  
할 수 있는 다섯 평짜리 지하 전  
세방. 얼핏 보아 평범한 가정의  
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  
는 '아흔 살 엄마'와 '칠순 아들'  
이 살고 있다.

선천적으로 뇌성마비인 아들  
정명종 씨(73). 장 씨가 오늘도 이

#### "이젠 나도 기력 떨어져"

깊음이 누운 채 큰 일개울 보았  
다. 어머니 정복술 할머니(94)는  
하루도 빠짐없이 70년 넘게 대소  
변을 받아오며 아들을 보살펴 왔  
지만, 요즘은 힘에 부쳐 제대로  
돌보지 못한다.

재작년 겨울, 정 할머니는 죽을  
뻔 하다 살아났다. 한밤중에 호  
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 인공  
호흡 끝에 가까스로 혼수상태에  
서 깨어났다. 한 달만 동안 병원  
신세를 지고 난 뒤, 집에 돌아 온  
정 할머니는 심장병과 고혈압에  
계속 시달리면서 기력이 급격히  
쇠퇴해졌다. 그러다보니 아들 장  
씨 수발은 물론, 하루 세 끼 밥하  
는 것도, 병원에 약 받으러 가는  
것도 여의치 않게 됐다.

"크게 아프고 난 뒤로는 약에  
의지해 살다보니 정신도 가물가  
물하고 기력이 없어 잘 움직이지  
도 못하겠어. 이젠 내 몸도 건  
사하지 못하니 갈 때가 된 것 같  
은데,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 
지..."

정 할머니는 그야말로 파란만  
장한 삶을 살아왔다. 아들이 8살

때, 남편은 급성 폐렴으로 먼저  
세상을 떠났다. 생계가 막막해진  
정 할머니는 뇌성마비 어린 아들  
을 키우려고 안 해 본 것 없이 닥  
치는 대로 일을 했다. 남의 집 식  
모살이부터 간병, 행사까지 밤낮  
을 잊고 살았지만, 형편은 나아  
지지 않았다. 그러던 중, 그나마  
기어 다니기라도 했던 아들 장  
씨가 10살 때부터 거의 움직일  
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했  
다.

정 할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  
두고, 1970년 서울 삼선교 진정  
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. 그러  
나 어렵게 사는 친정집에 더 이  
상 '집'이 될 수 없어, 한푼 두푼  
모아둔 돈을 가지고 지금 집으로  
옮겨와 12년째 살고 있다.

이들 모자의 생계비는 아들 장  
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정부지  
원금 47만원이 전부. 가스비와

#### "오늘 저녁 또 굶으려나..."

전기세, 수도세 등의 공공금 25  
만원을 치르고 나면, 남은 돈은  
고스란히 아들 모자의 약값으로  
들어간다.

어느덧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 
점심시간을 가리킨다. 하지만 뒤  
하나 해먹을 것도 없이 텅 빈 냉  
장고 문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  
할머니. 벌써부터 저녁끼니 걱정  
이 앞선다.

후원 방법 : 전화 (02)924-  
7528 제좌번호 농협 026-01-  
037728(예금주 정복술)

김철우 기자 in-gan@buddhapa.com

#### 3월 14일 (목)

■마미문화원 '아침경 강' = 부  
채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경전  
인 아함경. 그 속의 근본불교 사상  
을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이승  
준 씨를 통해 들어본다.

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  
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목  
요일마다 인곡동 본원에서 3개월  
동안 계속된다. 참가비는 10만원  
(02722-1050)

#### 3월 15일 (금)

■봉은사 '행복한 가정 만들기' 특  
강 = '불자가정의 철학' '생활명  
상' '불교와 인간관계' ... '행복한  
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 
까?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.'

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부

#### 신행 캘린더

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  
는 서울 봉은사 보우전에서 5월  
18일까지 계속된다. 참가비는 3만  
원.(02516-5652)

■좋은벗들 '통일대화마당' = 통  
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들려  
주는 통일이야기. 한평생 통일운동  
과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백 소  
장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강좌.

▷지난해 열린 통일대화마당.  
좋은벗들은 4월 26일까지 매주  
금요일 통일운동가들의 삶을 엿

볼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한다. 오후  
7시 30분 서초동 정토회관.  
(02587-8996)

#### 3월 16일 (토)

■은평도서관 '무료영화 상영' =  
라이언킹2, 파이안, 토이스토리2,  
공동경비구역, 101달마시안, 러브  
레터... 도서관에서 보는 영화, 웬  
지 별미일 것 같은 느낌. 가족이  
함께 한다면 기쁨 두배.

은평구립도서관은 31일까지 매  
주 오후 2시 본원 지하1층 시청각  
실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한  
다.(02385-1671)

#### 3월 18일 (월)

■수원포교당 '불교문화답사' =  
원주 송광사, 위봉사, 화암사 등 전  
라북도 고찰을 둘러보는 신촌 성지

순례. 송광사 일주문 사천왕상, 화암  
사 극락전, 화암사 우화부 등 성보  
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.

출발은 오전 8시 30분 본원, 참  
가비는 2만원이다.(031)253-0108

#### 3월 19일 (화)

■진철 스님 초청법회 = 신라문화  
원은 저녁 7시 불교사 문화회관에서  
서 통도사 한주 진철 스님을 초청,  
'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'을  
주제로 법회를 봉행한다.

통도사와 낙산사 지비원장을 역  
임한 스님은 오랫동안 불교 사회  
봉사운동을 이끌어 왔다.(054)  
774-1950

#### 3월 20일 (수)

■고영을 '선행회전' = 화려한 색  
채와 섬세한 선 묘사, 기존 불화와 차

별되는 현대적 화풍미를 추구해 온  
고영을 씨의 '삼라만상전'이 26일까  
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.

이번 행사에는 '바람소리' '세  
상 속으로' 등 50여 작품이 전시  
돼, 자아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해  
와 달, 별과 바람, 우주와 자연에  
이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담  
아낸다.(02730-4488)

#### 3월 21일 (목)

■법장사 '사찰순례기도' = 동해  
삼화사의 강릉 낙가사를 돌아보  
는 성지순례. 자정유사가 당나라  
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세운 두 고  
찰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뜻을  
되새겨 보자.

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6시  
30분 서울 목동 법장사. 참가비는  
2만 5천원.(02971-0303)

## 공부하고 수행하며 절 살림 도맡아

### 우리 절 우리 신도

#### 서울 정혜사 서창교 사무장

"어서오십시오, 보살님!"  
관음재일이었던 7일 오전 서울 창  
동 정혜사(주지 남전 3층 법당, 계단  
을 오르는 노보살님을 부축하며 반  
갑게 맞는 이가 있다. 정혜사의 사무  
장 서창교씨(36)다. 법회에 참석하  
는 불자들에게 흠뻑한 점은 없는지  
일일이 살피는 서씨의 할일은 어느  
새 정심 공양 준비로 이어진다.

사찰의 사무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 
서씨는 정혜사의 모든 살림살이를  
행간다. 그러나 서씨는 정혜사의 사  
무장이기 이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 
일심으로 따르고, 정혜사의 도반들  
을 사랑하는 열렬 신도다.

서씨와 정혜사의 인연은 좀 특별  
하다. 97년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한  
서씨는 불교학생회에 참여하게 되었  
고, 그곳에서 지도법사인 남전스님  
을 처음 만나게 됐다. 당시 스님의  
법문은 독특하게 문답식으로 이루어  
졌는데 초심자였던 서씨는 참선과  
기도, 수행에 대해 스님과 많은 이야  
기를 나누면서 불자로서의 새 삶을  
설계할 수 있었다. 99년 서씨가 방송  
통신대 불교학생회의 회장을 맡으면  
서 스님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,  
2000년 12월부터는 아예 스님이 계

시는 정혜사를 찾아와 스님의 <금강  
경> 강의를 들으며 틈틈이 절일까지  
도왔다.

그러다 지난해 초 사무장으로 일  
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스님의 제  
안을 받아들여 1년 넘게 신도뿐 아  
니라 정혜사의 살림을 꾸리기는 실  
질적 소임자인 사무장 역할까지 총

#### 열정으로 청년법회 이끌어

#### "佛法 편히 배우게 최선을 다 할터"

실행 수행해 오고 있다.

아직 미혼인 서씨는 지난해 결성  
된 정혜사 청년회를 주도적으로 이  
끌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. 20여  
명으로 구성된 청년회는 사찰 내에  
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  
하는 한편, 정기법회활동으로 신심  
을 키워나간다. 관음재일 법회가 끝  
난 후에도 서씨는 신도들의 틈을 비  
집고 다니며 청년회 회원 모집에도  
정성을 들였다.

"정각행 보살님, 올해 대학에 입학  
한 따님은 왜 같이 안 나오셨어요? 저  
희 청년회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시



▷7일 관음재일 법회 후 3월 31일 행사와 자원봉사 일정에 대해 신도들과 이야기  
를 나누는 서창교 씨. (왼쪽에서 세번째)

외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 
한 서씨의 몫이다. 여기에 96년 창문  
동 정혜사 개원 때부터 '정법을 배워  
야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다'며 불자  
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쏟아  
온 주지 남전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 
불교교양대의 활성화와 올해 새롭게  
결성된 거사회를 뿌리내릴 수 있게  
지원하는 것. 또 이전과 함께 지역  
어린이불자들을 위해 마련할 예정인  
어린이법회 개설 등 올해 정혜사가  
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  
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원만히  
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 
도 부족할 지경이다. 오는 4월 28일  
에는 이전 개원법회까지 예정되어  
있다.

이처럼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 
도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서  
씨는 정경공부와 기도에도 더해 참수

행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. 직장이  
곧 수행처인 것이 너무나 좋다는 서씨.  
"항상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스님  
의 뜻을 받들어 하루하루에 충실하  
려 합니다.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  
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도들의 다양  
한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 주민 누구  
나 편안하게 찾아와 부처님 가르침  
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가족 같은 정  
혜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"이라며 활  
짝 웃는다.

#### 추천의 말

남전 스님 서울 정혜사 주지

정혜사는 기  
도하는 도량, 공  
부하는 도량'을  
가꾸기 위해 정  
기적인 재일기  
도와 일요일법회,  
그리고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  
고 있습니다. 지난 5년간의 셋방  
살이를 마치고 최근 독립 건물로  
이전한 정혜사는 제2의 도약을  
준비 중입니다. 모두 정혜사 불  
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  
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

그 불자들 가운데 서창교 법  
우는 제가 지도법사로 있던 방  
송통신대 불교학생회 '통불  
회' 제21대 회장으로 인연을 맺  
어 정혜사에 어려운 시기에 사  
무장의 소임을 맡아 사중에 많  
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주지  
인 저를 대신하여 의식을 집전  
하고, 청년회 법회를 이끌어 굿  
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랑스런  
우리 절의 신도입니다.



이은자 기자 elee@buddhapa.com

##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

나란다상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, 불교대학·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·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(사)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. 과목별 특강으로 경·율·논·선·밀교·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요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·영어·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,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추천한다.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.

#### 모집과정

사미과(沙彌科) : 사미율의·초발심자경문·치문경론·천수경·반야심경·아함경·예불의식·법회의식  
사집과(四集科) : 서장·도서·선문철학·방등경·계율해설·비교종교학·구사론·장례의식·방생의식  
사교과(四教科) : 능엄경·금강경·원각경·반야경·기신론·유식론 교단사·불공의식·기도의식  
대교과(大教科) : 법화경·화엄경·정토사상(미타, 약사, 미륵, 밀교)·선문영송·전등록·삼론·교리발달사·제사의식  
특별과정(외국어학과) : 영어·일어·중국어(회화중심)

교육기간 : 2년(과제별 선택, 통선반 가능)

개강일시 :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

교수진 : 한정성 박사, 김호암(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), 남진각 스님(LA 대학사주지) 오형근 교수(전 동국대불교대학장), 최종안 교수(중앙승가대학 교수), 진하 스님(예술대학 주임교수), 해인 스님(신흥사 주지) 외

강의시간 : 각 과별로 매주 월~목요일까지 오후 7~9시

접수문의 : 나란다상장불학원 교학처 (☎ 02-969-2410, 4981)

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-14 (사) 한국불교금강선원 내

## 나란다상장불학원

##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

(사)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 9호(적법무 기능보유자) 이신 三歸 金海崗 큰 스님의 범패(梵唄)와 범무(梵舞)를 전수교재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.

모집과정 : 기초과정

모집인원 : 선착순 12명

교육기간 : 각 과정 4개월 기본(1년 과정)

모집기간 : 3월20일 ~ 4월20일까지

강의내용 :

	교육과정	교육내용
기본과정	기초과정	범음,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전수바라 작법무 법요의식 강의(석문의 범)
	중등과정	전수바라, 다게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(석문의 범)
	고등과정	사다라니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(석문의 범)
연구과정	대학과정	운심계, 삼귀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(석문의 범)

강사진 : 한정성 법사, 김진하 스님(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준보유자)

강의시간 : 매월 2, 4째주 수, 목요일 강의

특전 :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.

문의처 :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(☎ 02-969-2410, 4981)

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-14 (사) 한국불교금강선원 내